

은행

(6월) 여수신 동향: 변동 있으나 전월과 유사

김지원

금융 | jjwonkim@daolfn.com

● 여신 동향

예금은행 6월 대출은 일부 변동성 있으나 2Q26E 대출성장률 상승 가능성을 재차 확인. 가계대출 보다 확대된 점 특징. 예금은행 2026E 연평균 대출성장률 4.1% 전망은 유지

가계대출 잔액 증감폭 +7.6조원(vs. 26년 5월 +6.9조원 vs. 25년 6월 +6.2조원)

기업대출 잔액 증감폭 +5.1조원(vs. 26년 5월 +10.6조원 vs. 25년 6월 -3.6조원)

가계대출 잔액 1,189.4조원(비중 45.7%; YoY+2.4%, MoM+0.6%),

기업대출 잔액 1,413.4조원(비중 54.3%; YoY+5.2%, MoM+0.4%)으로,

합산 대출잔액 2,602.8조원(YoY+3.9%, MoM+0.5%).

증감폭 기준으로는 가계대출 전월비 확대 및 기업대출 전월비 축소 그러나 추세적 흐름 확인상 YoY 변화율 기준으로는,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 성장률 확대 흐름 이어지는 중

가계대출의 여신종별 잔액 증감폭은 주택담보대출 +4.3조원(vs. 26년 5월 +3.2조원 vs. 25년 6월 +5.1조원), 신용대출 포함한 기타대출 +3.3조원(vs. 26년 5월 +3.7조원 vs. 25년 6월 +1.1조원)

주담대는 제한적 성장 이어가는 가운데, 전월비로는 연이은 증가폭 확대.

전월과 유사한 동향. 주택거래 및 기분양몰량 증도금 납부 관련 대출수요 지속. 지역별 주택 매매거래량 차별화. 수도권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 이어짐.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유예 종료 전후 특히 강남3구 중심 매매수요 증가. 증여와의 관련성 추론. 한편 비수도권은 반대로 주택 매매거래량 감소. 향후 동향은 확인이 필요하나, 이후 시간 경과하면 급증했던 매매수요 진정 가능성도 생각. 1금융권 은행 대출은 보다 증가. 은행 자체 취급 주담대 증가폭 확대된 가운데, 6월에는 막차 수요 기반 정책대출 증가폭도 확대. 한편, 전세자금대출 감소는 지속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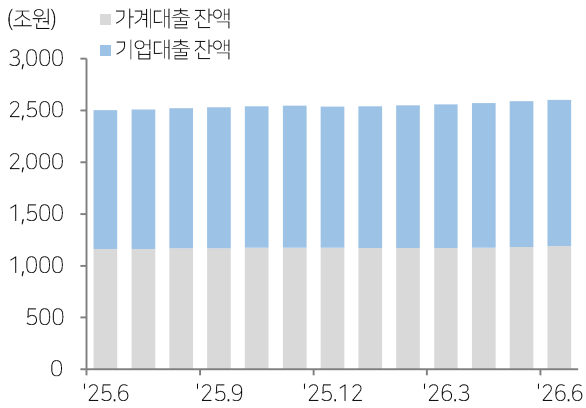
기업대출은 전월비 증가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증가 흐름 이어짐. 6월 분기말 부실채권 상매각에 잔액 일부 감소했으나, 여전히 주식 투자 수요 확대 영향

기업대출의 여신종별 잔액 증감폭은 대기업 대출 +3.4조원(vs. 26년 5월 +5.2조원 vs. 25년 6월 -3.7조원), 중소기업 대출 +1.7조원(vs. 26년 5월 +5.4조원 vs. 25년 6월 +0.1조원). 기업대출 증가폭 확대 흐름은 여전하다고 해석. 다만, 전월비 변동은 6월 분기말 부실채권 상매각과 기업들의 반기말 재무비율 관리 목적 일시 상황에 기인. 은행들의 대출 영업 확대 및 공급 그리고 기업 운전자금 수요 증가 작용은 이어지는 중

● 수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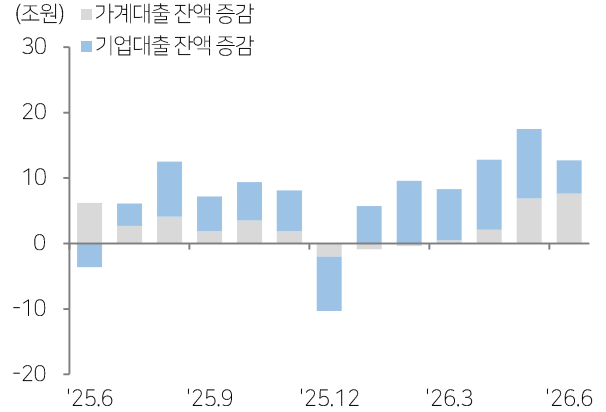
예금은행 6월 수신은 증가했으나 전월비 증가폭은 축소. 전월비 증가폭 +28.8조원(vs. 26년 5월 +48.8조원)으로 변화. 수신잔액 2,622.5조원(YoY +6.6%, MoM +1.1%). 금월에도 대기업들의 대기성 자금 유입으로 수시입출식예금과 정기예금 증가했으나, 가계자금 인출에 의한 변동으로 해석

Fig. 1: (6월)대출잔액: 가계 MoM +0.6%,기업 MoM+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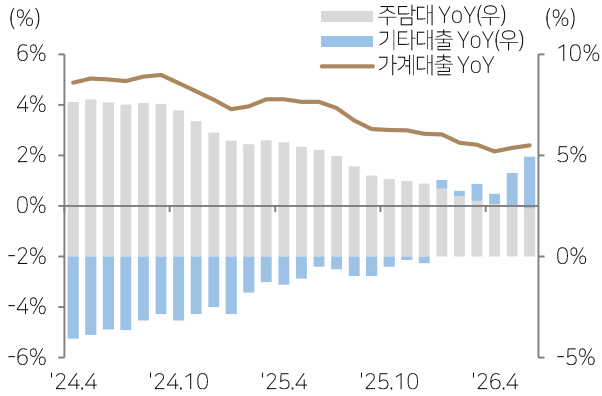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다음투자증권

Fig. 2: (6월)대출잔액 증감: 가계+7.6조원,기업+5.1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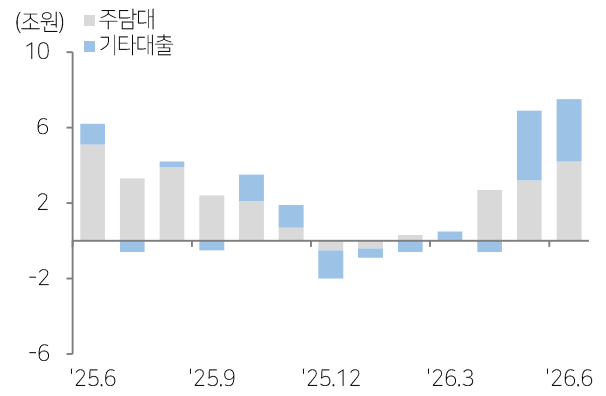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다음투자증권

Fig. 3: (6월)가계대출 잔액 YoY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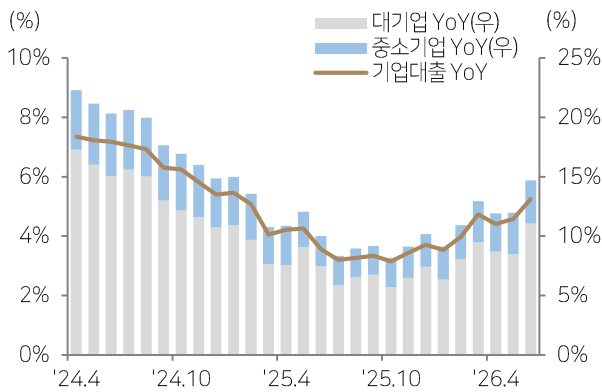
Note: 항목별 증감율을 단순 누적하여 기여도 확인 목적
Source: 한국은행, 다음투자증권

Fig. 4: (6월)가계대출 증감: 주담대+4.3조원,기타+3.3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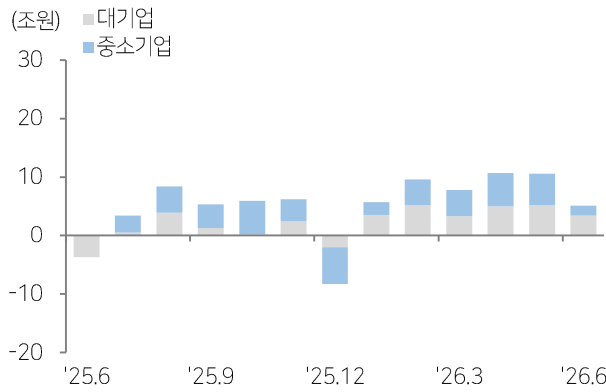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다음투자증권

Fig. 5: (6월)기업대출 잔액 YoY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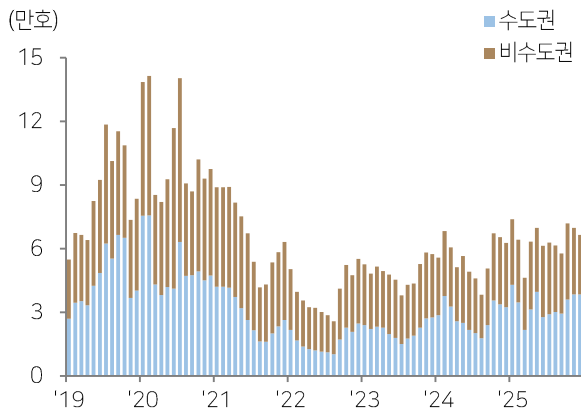
Note: 항목별 증감율을 단순 누적하여 기여도 확인 목적
Source: 한국은행, 다음투자증권

Fig. 6: (6월)기업대출 증감: 대기업+3.4조원,중소+1.7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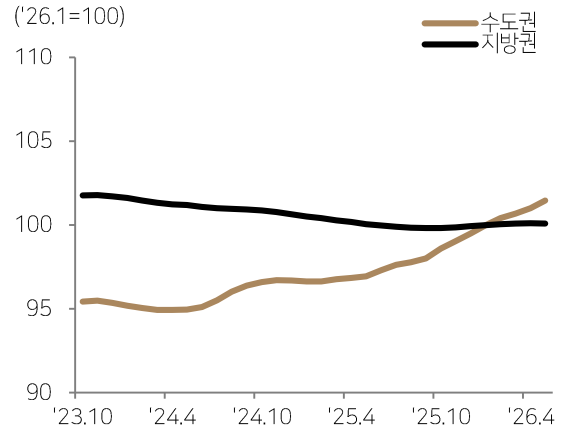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다음투자증권

Fig. 7: (주택종합) 월별 매매거래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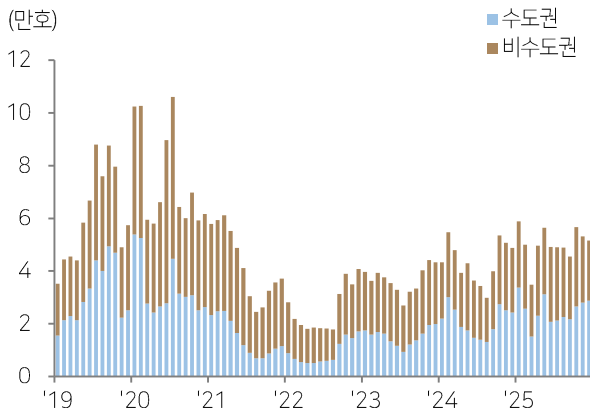
Source: 한국부동산원, 다올투자증권

Fig. 8: (주택종합) 월별 매매가격지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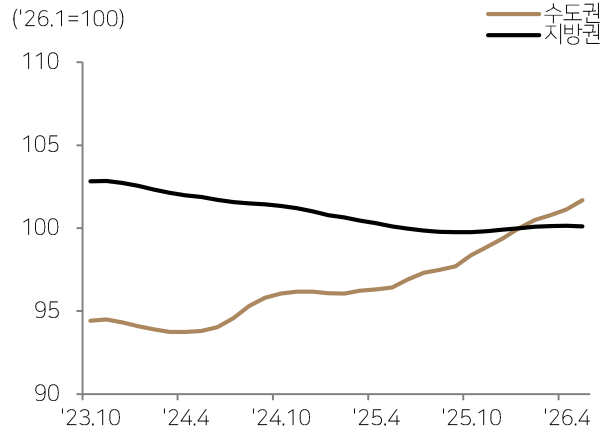
Note: 26년 1월 지수 기준 시점 변경된 점 감안
Source: 한국부동산원, 다올투자증권

Fig. 9: (아파트) 월별 매매거래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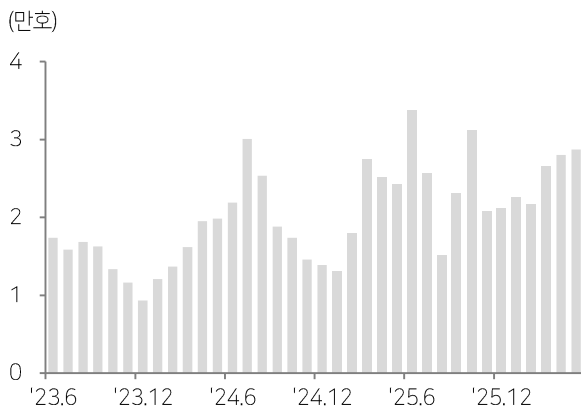
Source: 한국부동산원, 다올투자증권

Fig. 10: (아파트) 월별 매매가격지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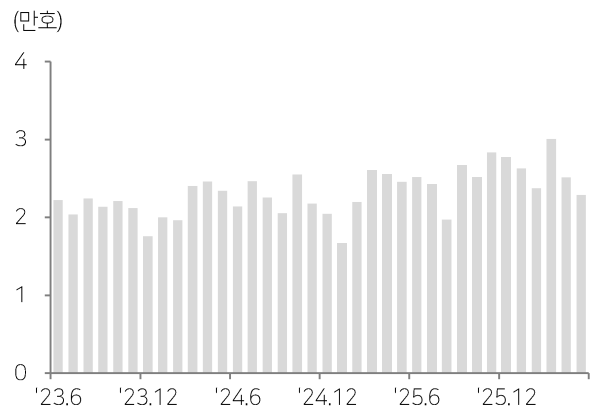
Note: 26년 1월 지수 기준 시점 변경된 점 감안
Source: 한국부동산원, 다올투자증권

Fig. 11: (주택) 월별 매매거래량 동향: 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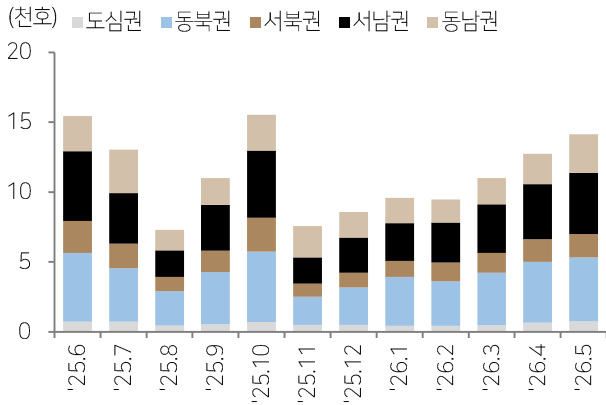
Source: 한국부동산원, 다올투자증권

Fig. 12: (주택) 월별 매매거래량 동향: 비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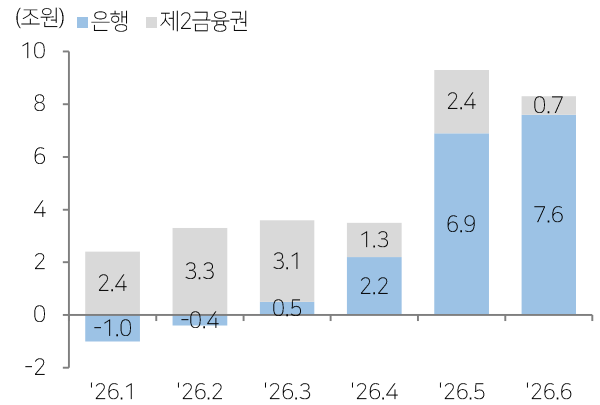
Source: 한국부동산원, 다올투자증권

Fig. 13: (주택) 월별 매매거래량: 서울 권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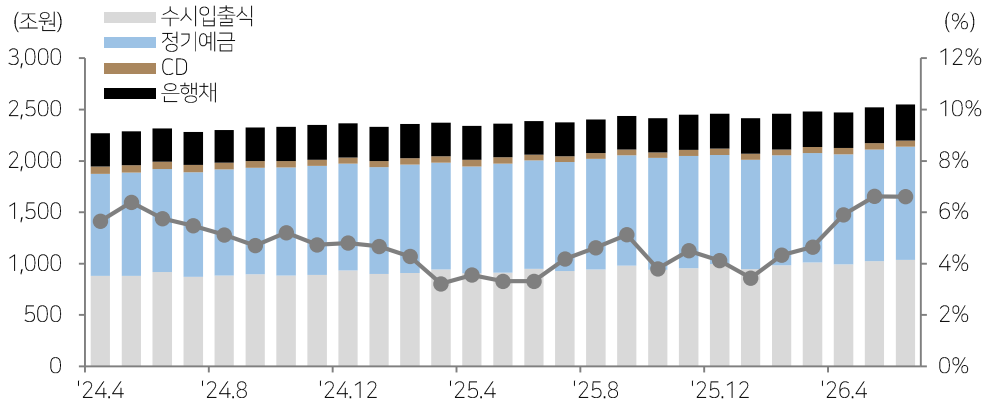
Source: 한국부동산원, 다올투자증권

Fig. 14: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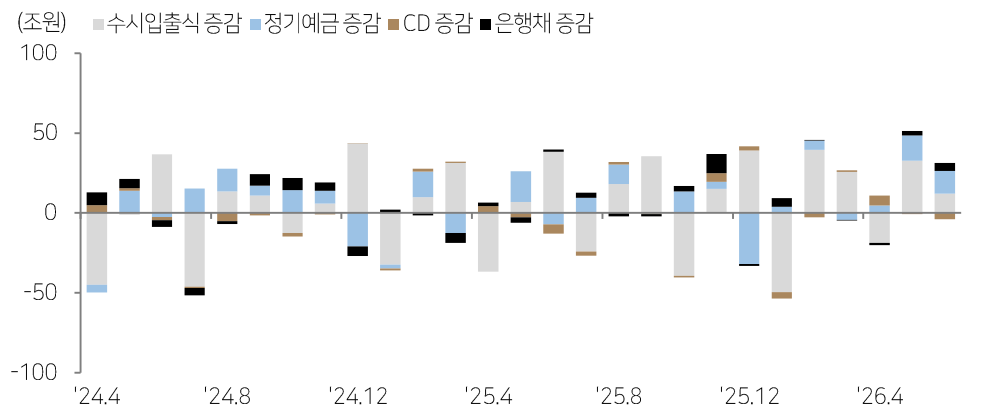
Source: 금융위원회, 다올투자증권

Fig. 15: (6월) 수신 유형별 잔액 및 총 잔액 YoY 변화율



Source: 한국은행, 다올투자증권

Fig. 16: (6월) 수신잔액 증감: 변동 있으나, 수시입출식예금과 정기예금 증가



Source: 한국은행, 다올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91.7% HOLD: 8.3% SELL: 0.0%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